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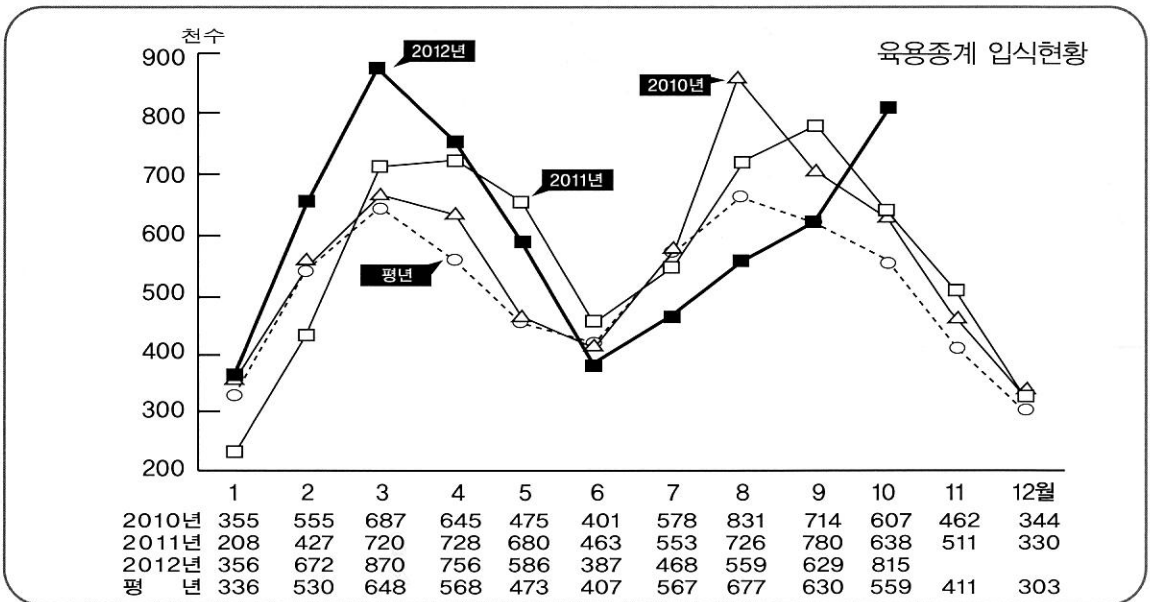


12월 닭고기 수급 전망

1. 육용종계 입식현황

❖ 10월 육용종계 입식수수 전년동기대비 27.7% 증가

- 지난 10월 육용종계 입식수수는 81만5천3백수로 전년동기(638천4백수) 대비 27.7% 감소했으며, 이는 평년 수준(55만9천수) 대비 45.9% 증가한 수준이다(9월 62만9천수 대비 29.7% 증가).
- 지난 10월까지 종계입식은 전년대비 2.9% 증가했으며, 지난 4월까지의 입식량이 전년동기보다 많아 2013년 초까지는 생산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. 종계 사육수수는 전년대비 2.9% 증가한 692만수로 추정되고 있는데 종계입식 감소와 노계도태 증가로 성계의 사육수수는 전년대비 2.2% 감소로 산란계군의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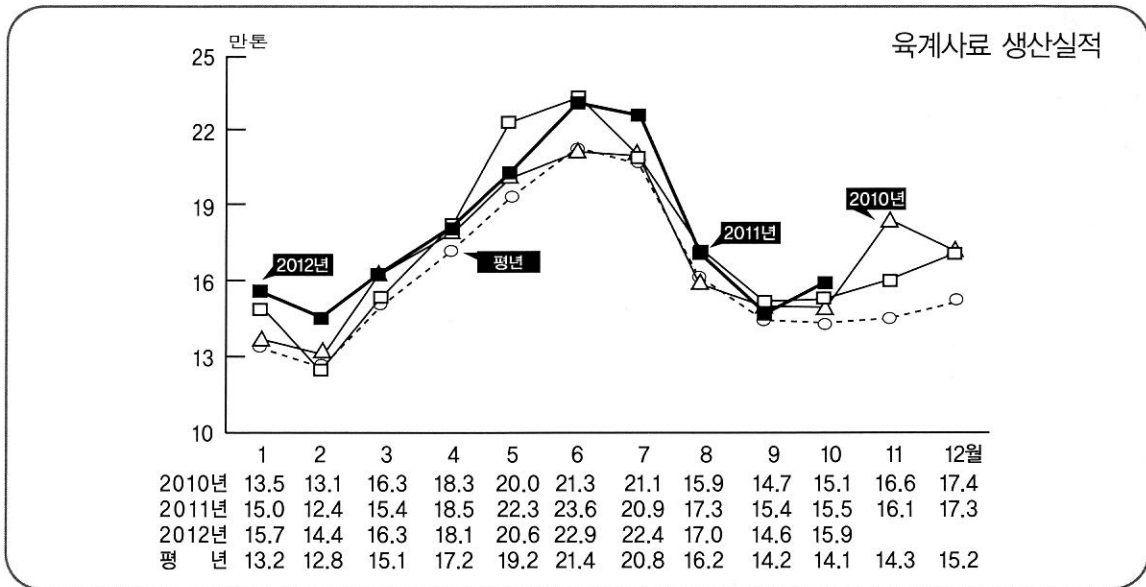


※주 : 평년은 2007~2011년의 입식수수 중 최대, 최소를 뺀 평균
 ※자료 : 대한양계협회

2. 배합사료 생산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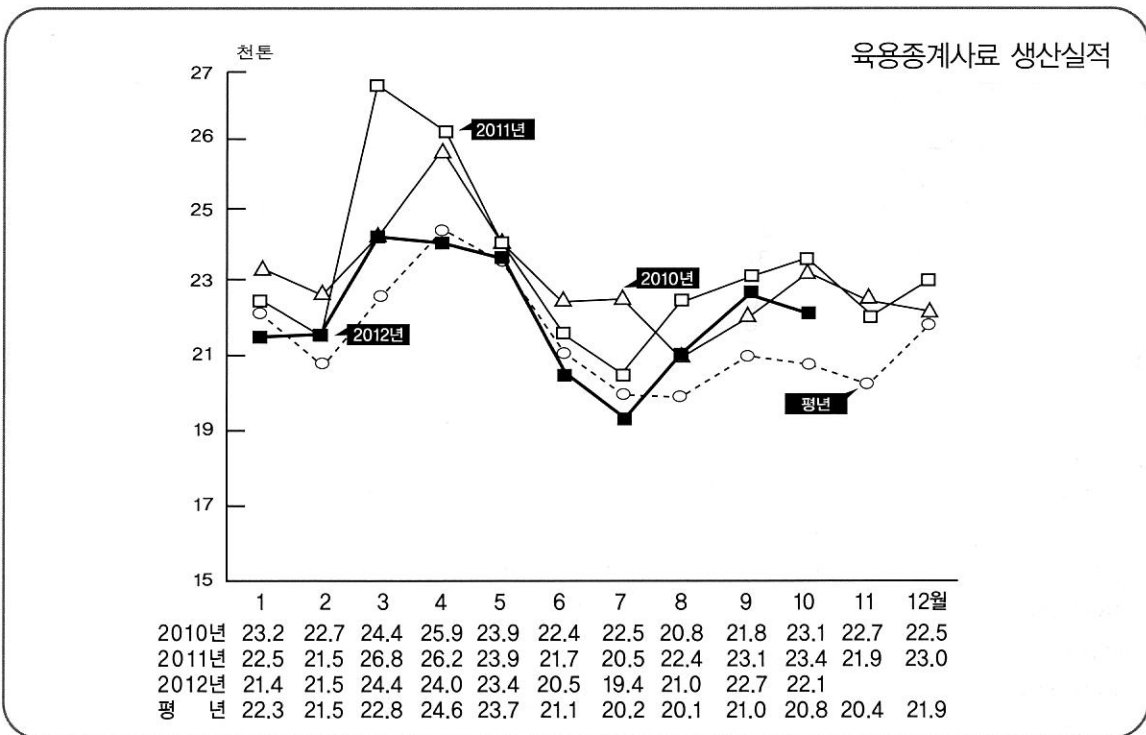
❖ 12월 사육수수 전년동기보다 증가 전망

- 12월 닭고기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10월 육용종계 사료 생산량은 22,083톤으로 전년동월(23,367톤) 대비 5.5% 감소했으며, 전월(22,689톤) 대비해서는 2.7% 감소했다. 이는 최근 종계계군의 조기도태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사료섭취량이 감소한데다 생산성이 향상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. 하지만 사료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육계 사육수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.
- 한편 10월 육계 배합사료 생산량은 159,219톤으로 전년동월(155,185톤) 대비 2.6% 증가했으며, 전월(145,744톤) 대비해서는 9.2% 증가했다. 이는 추석연휴에 일시적으로 입식기피현상이 있었으며 기온하락에 따른 증체 저하로 생산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. 하지만 생산성 향상으로 잠재력은 높은 상황이어서 사육수수는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.



※주 : 평년은 2007~2011년의 생산량 중 최대, 최소를 뺀 평균

※자료 : 농림수산식품부



※주 : 평년은 2007~2011년의 생산량 중 최대, 최소를 뺀 평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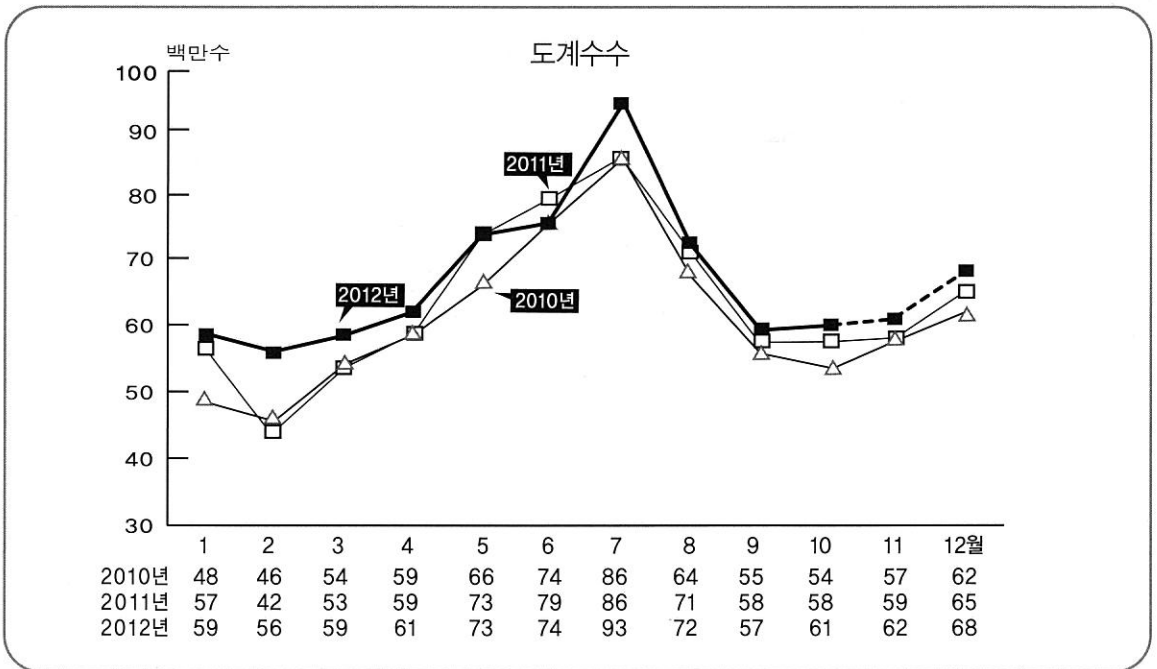
※자료 : 농림수산식품부



3. 도계수수

❖ 12월 도계수수 전년보다 증가할 전망

- 지난 10월의 도계수수는 6,133만수로 전년동월(5,777만수) 대비 6.2% 증가했으며, 전월(5,687만수) 대비 7.8% 증가했다.
- 12월에는 육계 사육마리수 증가와 생산성 향상으로 도계수수 역시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도계수수는 11월보다는 10.9% 증가한 6,833만수로 전망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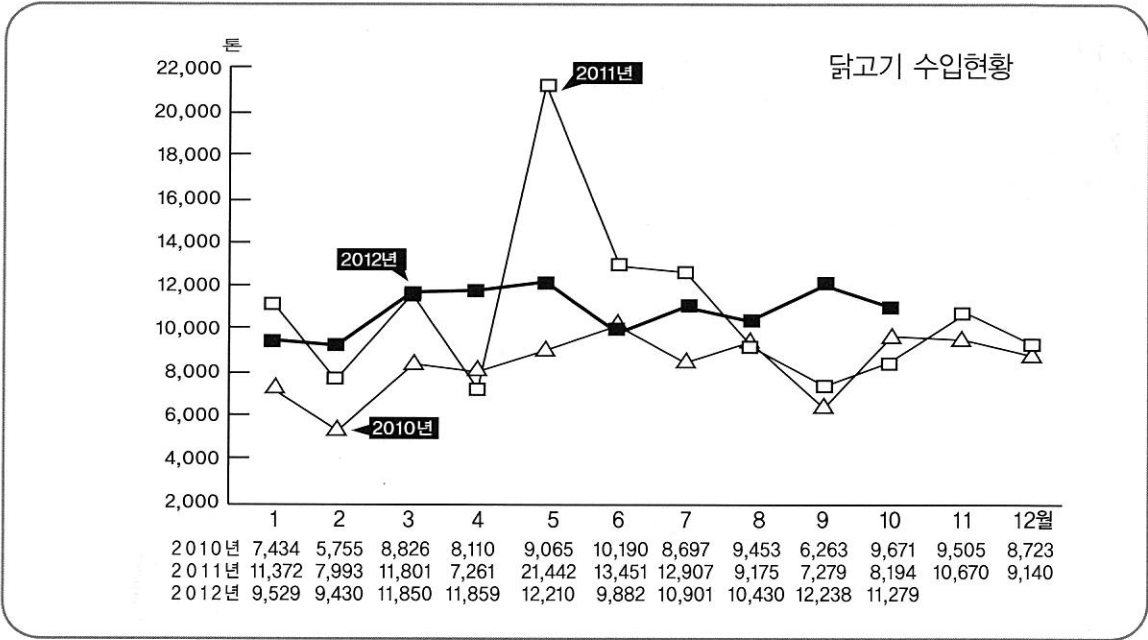


※자료 : 농림수산식품부(2012년 11~12월은 농경연 추정 및 전망치)

4. 닭고기 수입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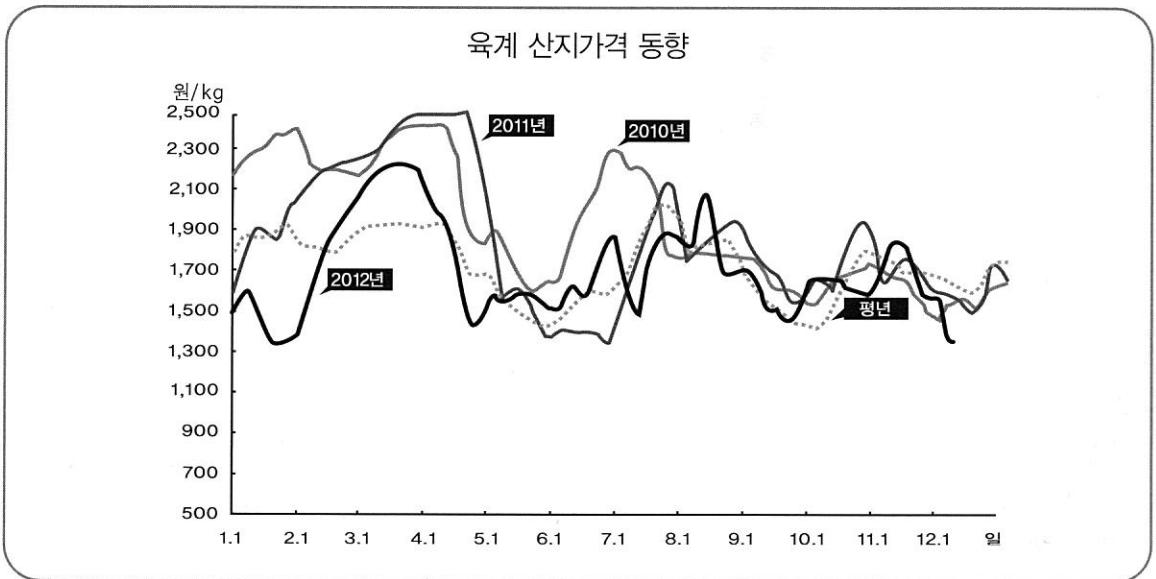
❖ 12월 닭고기 수입량 전년대비 증가 예상

- 지난 10월에는 11,279톤이 수입되어 전년동월(8,194톤) 대비 37.6% 증가했으며, 전월(12,238톤) 대비해서도 7.9% 감소했다. 검역기준 수입량은 8,193톤으로 전년동월(6,394톤) 대비 28.1% 증가했으며, 전월(7,103톤) 대비해서는 15.3% 증가했다.
- 현재 수입육의 냉동재고가 계속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는 증산에 의한 가격하락과 밀어내기식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, 닭고기 수입에 대기업까지 참여하면서 전반적인 수입량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. 따라서 국내산의 가격동향과 관련없이 당분간 수입량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.



※자료 : 농수산물무역정보

5. 가격동향



※주 : 평년은 2007~2011년의 가격 중 최대, 최소를 뺀 평균

※자료 : 농협, 축산물 가격정보(5일 이동평균가격)



❖ 12월 육계 산지가격 평균 1,400~1,600원 전망

- 11월의 경우 추석연휴 입식감소로 인한 일시적인 출하공백과 기온 하락에 따른 증체 저하로 중순까지 산지가격이 높게 유지되었으나 김장철로 인해 소비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가격이 하락세를 보여 11월(1~30일) 평균 육계 산지가격은 1,653원을 나타냈다(전년 11월 1,684원 보다 1.8% 하락, 평년가격 1,701원 보다는 2.8% 하락, 전월 1,640원보다 0.8% 상승).
- 12월의 경우 크리스마스 및 연말수요가 있고 계절적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여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, 냉동비축물량이 크게 증가한 상태에서 사육 및 도계마리수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공급량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시세는 전년과 비슷한 1,400~1,600원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(전년 12월 가격은 1,586원, 평년가격은 1,655원).

6. 수급자료

〈육계 및 삼계 입식·비축현황〉

(단위 : 천수)

기간	육계						삼계					
	입식			비축			입식			비축		
	2011년	2012년	전년대비	2011년	2012년	전년대비	2011년	2012년	전년대비	2011년	2012년	전년대비
10.22 ~ 10.28	8,255	8,134	98.5%	4,309	5,277	122.5%	1,390	1,450	104.3%	2,240	2,796	124.8%
10.29 ~ 11.4	8,517	8,547	100.4%	4,156	5,138	123.6%	1,350	1,422	105.3%	2,284	2,797	122.5%
11.5 ~ 11.11	8,479	8,720	102.8%	4,155	5,021	120.8%	1,420	1,339	94.3%	2,178	2,793	128.2%
11.12 ~ 11.18	8,678	8,844	101.9%	4,073	5,158	126.6%	1,420	1,312	92.4%	2,291	2,802	122.3%
11.19 ~ 11.25	8,975	8,776	97.8%	3,992	5,516	138.2%	1,415	1,243	87.8%	2,285	2,825	123.6%

7. 결론

- 12월에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수요가 증가하는 연중 2번째 성수기로서 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, 생산물량은 전년대비 증가하고 냉동비축물량의 경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산지가격은 약세가 예상되어 시세는 1,400원~1,600원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.
- 시세변동요인

구분	생산(공급) 측면	소비(수요) 측면
인상요인	- 기온하락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	- 별다른 소비요인 없음
하락요인	- 사육 및 도계마리수, 냉동 비축물량 증가 - 수입량 증가	- 경기침체로 소비위축